

아름다움을 즐기고 누릴 줄 아는 여성

할 것 다하고도 안한 듯한 화장, 때·장소따라 변화를

못생긴 톱모벌

김동수의

멋내기 교실

③



‘화장’하면 ‘골이 빈 여자들의 부질없는 짓거리’나 ‘시간이 남아도는 여자들의 사치스런 소비 행위’쯤을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무대 화장 이상 가는 짙은 화장을 천박스럽게 하고 다니는 이들도 있다. 결국, 할 거 다 했으면서도 하지 않은 듯이 보이는 잘한 화장을 한 이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거창하지만 나의 화장 철학을 이야기하자면 자신의 아름다움을 찾아내어 가꾸고 그 아름다움의 힘으로 의욕과 자신감에 넘친 생활을 하자는 것이다. 뭔가 모자라는 느낌으로 쭈뼛대는 자세가 아닌 진정으로 아름다움을 즐기고 누릴 줄 아는

여성이 되어야겠다.

남자들 중에는 ‘맨얼굴에 생머리’를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여성이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고 싶어하는 본바탕을 무시하는 처사다. 내 말은 여자들의 체 몸 가꾸는 일이 꼭 남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물론 ‘맨얼굴에 생머리’가 본인의 취향이어서 그런 경우에는 예외겠지만 말이다.

차밍스쿨을 찾아오는 여성들 중에는 의외로 많은 숫자가 ‘남편 때문에...’, ‘남자 친구가 긴 생머리를 좋아해서...’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는 어릴 때마다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곤 하는데 본인의

분위기에 맞지도 않은 겉모습에 화부터 나기 일쑤다. 피부색이 유난히 누런 색을 띠어 살짝만 화운데이션으로 눌러주면 좋겠다 싶은 여성이나, 키는 작으면서 두상은 큰 체형의 여성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으면 나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의 이러한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렇다면 화장이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텐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자신을 연출하는 데에 어색한 이들은 사시사철 밤낮 없이 똑 같은 화장을 하고 집을 나서는데 때와 장소를 가려서 자신의 개성을 살리는 화장을 하자는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 낮에 외출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연한 화장을, 밤에는 조금 더 뚜렷하고 확실한 화장을, 웃고 떠들어야 하는 곳에 갈때엔 화장도 편하고 발랄하게, 업무로 사람을 대하는 곳에 갈 때엔 좀 단정하고 공식적인 화장을, 데이트하러 갈 땐 분위기를 살린 화장을 해주는 것이 좋다. 수영이든 테니스든 스키든 등산이든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러 갈 땐 화장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햇빛이나 바람에 피부가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간단한 조치가 필요할 뿐이다. 산이나 들로 휴식을 취하러 갈 땐 피부도 함께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남의 눈을 너무 아랑곳하지 않는 것도 문제겠지만 남의 시선이나 평가를 너무 의식해 웃지 못할 코미디를 벌이는 일은 얼마나 또 자존심에 금이 가는 문제이겠는가?